

사 랑 사 랑

회원통신 제35호(97/11/15)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interpia.net Internet Web; http://www.interpia.net/~rights/

<인권하루소식> 1000호가 나오는 밤을
여기(장안동 대공분실)서 지낸다는 것
자체가 드라마틱하다.

양심수에 관한 치졸한 논쟁이 있는 후
연행된 것도 뜻깊은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잡혀온 것은
오히려 인권운동가의 기쁨이다
- 서준식, 11월 5일 가족 면회시



사 / 업 / 보 / 고

(97년 9월 셋째주부터 10월 둘째주까지)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기념행사 성황리에 열려

지난 11월 5일 서대표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인권하루소식> 지령 1천호 기념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날 기독교회관 관리처의 비협조로 당초 행사장으로 예정된 기독교회관 강당이 폐쇄된 속에서 옆 식당에서 급하게 행사장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이날 행사에는 약 3백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행사를 빌려준 서울부패 주인은 다음날 아침 동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경찰서에 불려갔다고 합니다). 이날 참석한 분들은 사무국의 연락을 받은 인권피해자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서준식 대표의 연행 소식에 분노하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여 열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행사 시작 시간인 오후 6시가 다 되어도 좀처럼 열리지 않는 강당 문을 바라보며 우리 현실의 벽을 다시금 느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급조된 행사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행사는 성황리에 이뤄졌습니다. 장소가 좁아서 채 앉지 못하거나 밖에서 서성거릴 수밖에 없었던 많은 분들에게는 참으로 죄송스럽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제1부 기념행사에서는 서대표를 대신하여 강경선 운영위원이 손님들께 인사를 했습니다. 이어 축사는 김승훈신부님, 김진균교수님, 최영도 변호사님, 로스 다니엘스 국제앰네스티 아태지역 책임자 등이 발언했습니다. 민변 회장이신 최영도 변호사님은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서준식을 무조건 석방하라!”며 참석자의 의사를 대변하였습니다. 1부 순서는 꽃다지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바위처럼’을 함께 부르는 것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차려진 부페 음식을 들면서 시작된 2부 순서에서는 행사장 문제로 인해 준비했던 영상물과 OHP를 상영하지 못해 다소 집중력이 떨어진 가운데 진행돼 매우 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행당동 철거민, 경찰폭력의 대표적 이철용씨, 김삼석씨, 전해투 노동자, 민가협 어머니 등 그동안 <인권하루소식>과 인연을 맺었던 많은 인권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진솔한 생각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서준식 대표의 석방과 양심수의 석방, 인권의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령 1천호 기념 기획기사에 관심을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지령 1천호를 맞아 ‘문민’정부 5년간의 인권정책을 평가하는 기획시리즈를 지난 6일자부터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배달된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전 정권 때와는 다른 현 정권에서의 특색있는 인권경향들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기획입니다. 총 13회에 걸쳐 진행될 이번 기획은 ① 삶의 질 ② 대형참사 ③ 주거권 ④ 노동 ⑤ 외국인 노동자 ⑥ 미군범죄 ⑦ 성폭력 ⑧ 매카시즘 ⑨ 컴퓨터통신 검열 ⑩ 사법개혁 ⑪ 국제인권조약 ⑫ 과거청산의 순으로 진행되며, 전체를 정리하는 좌담으로 끝맺게 됩니다. 충분한 연구와 심도깊은 토론을 거쳐 작성되지 못해 많은 한계가 있으나, 나름대로 현 정권 하의 인권경향을 정리한다는 사명감으로 모든 실무자가 심혈을 기울이는 이번 기획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유네스코 아동인권교육 회의 참석

류은숙 교육실장과 최은아 총무가 파리에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열리는 ‘인권교육과 어린이의 권리에 관한 유네스코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출국했습니다. 이들은 런던을 경유하여 파리 회의에 참석하고, 이후 제네바를 거쳐 오는 27일 귀국하게 됩니다. 이들 두 실무자는 회의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의 인권단체와 회의에 참석하는 세계의 인권단

체 사람들에게서 대표의 석방을 호소할 예정이며, 실질적인 국제연대를 이뤄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감자료집 발간 예정

매년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해온 자료실에서 올해도 내무위, 법사위, 환경·노동위를 비롯한 국회 9개 상임위의 국정감사 자료를 묶어 펴냅니다. 현재 막바지 작업 중이며, 국정감사 자료는 인권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부측의 주요 자료들이 많으므로 비치해 두시면 매우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집을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자료실 엄주현씨에게 문의바랍니다.

교육실장 참여연대에서 아동권교육

류은숙 교육실장이 참여연대에서 열고 있는 참여사회 아카데미에서 두차례 강의를 했습니다.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으로 실시된 이 교육에는 주부 20여명이 진지하게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교육에 쓰인 교재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발간)의 주요 부분은 류은숙 교육실장이 직접 집필하였고, 원고료 70만원은 파리행 비행기표를 사는데 썼습니다.

지역 영화제 <레드 헌트> 상영 못해

지역 영화제가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11월 둘째주까지 인천, 수원, 안양, 전주, 광주, 마창으로 진행된 지역 영화제에서는 문제가 된 <레드 헌트>를 공식적으로 상영한 곳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압력에 시달렸습니다. 곳곳에서 경찰, 안기부, 구청직원들이 동원되어 <레드 헌트> 상영 취소를 종용하였으며, 공연법과 음비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등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초까지 지역 영화제는 군산, 원주, 대구, 제주, 구리·남양주 지역에서 상영에 들어갑니다. 이들 지역도 앞의 지역과 마찬가지로 <레드 헌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상업 공간에서 상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인권영화제-서울 집행위원회는 서준식 대표의 후임으로 김동원 감독을 집행위원장 대리로 선정하였으며, 김 감독은 서준식 대표 공동대책위원회의 집행위원장 역할도 맡게 되어 앞으로 '구속 1호'의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인권영화제, 민족예술상 수상

민예총은 지난 15일 목포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전국민족예술인대회에서 지역단체의 민주적 연대에 기여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하였고, 표현의 자유 쟁취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인권영화제 주최측에 민족예술상을 수여했습니다. 상금은 2백만원입니다.

□ 사무국 실무자 임시 보충; 사무국에서는 서대표 구속 이후 급증하는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 임시로 유점열씨를 채용하였습니다. 유씨는 엄주현씨의 남편으로 사무실에서 굶은 일을 도맡아해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또, 국제문제연구소의 박의영씨도 일주일에 두번 파견나와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새로이 자원봉사자도 늘고 있는데,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인 이용포씨, 고대법대 2학년 심해진씨가 일주일에 두번씩 나와 일손을 거두고 있습니다.

<연대사업>

□ 과거청산국민위원회가 해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거의 활동을 중지한 과거청산국민위는 몇차례에 걸쳐 진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참가단체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논의조차 어려운 형편입니다. 대체로 많은 단체들은 과거청산국민위원회의 틀은 유지하고, 과거청산에 대한 준비작업 가령 학습모임 등을 진행하면서 이후를 대비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 대인지뢰공대위에 인권운동사랑방도 참가하고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 오전 10시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발족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에는 참여연대, 통일맞이, 교회여성연합회 등의 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12월 캐나다 오토로회의를 앞두고 국내에서 대인지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인권운동가에 대한 표적수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1. 구속에서 공대위 구성까지

이미 신문지상을 통해 알고 계시듯이 지난 11월 4일 오후 5시 서준식 대표가 서울시경 보안수사 2대에 의해 연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영장실질심사 절차도 없이 11월 5일 오후 5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지난 10월 8일 홍익대에서 열렸던 인권영화제와 관련, 마포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기까지 했던 서대표에 대해 경찰은 지역 인권영화제가 재개되기 이틀 전인 11월 4일 갑자기 사무실에 들이닥쳤던 것입니다. 서대표는 다음날 열릴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1천호 기념사를 작성 중이었습니다. 15명의 경찰은 실무자들을 회의실에 격리시킨 채 서대표를 체포해갔고, 1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서대표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레드 헌트> 이적성 집중 수사

서대표는 장안동 대공분실과 마포경찰서에서 약 1주일간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인권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제주 4.3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의 이적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경찰은 서대표가 <레드 헌트>가 이적성이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상영했다는 억지를 부렸고, 아울러 압수해간 물품 중에 『해방전 후사의 인식 2』, 박노해 시집 『참된 시작』, 『북한인권문제토론회(비공개) 자료집』 등도 이적표현물이라며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에 서대표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문제제기를 하였고, <레드 헌트> 문제 외의 조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계속 진술을 거부하였습니다.

11월 8일 서부지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변호사들은 이번 구속이 갖는 부당성을 여러 각도로 지적했습니다. 변호사들과 서대표는 이번 구속이 표적수사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즉, <레드 헌트>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2회나 상영되었던 것으로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던 것이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였다는 이유로 서대표를 구속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결성

하지만, 구속적부심은 결국 기각되었고, 경찰은 지난 11월 12일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 현재 서대표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영등포구치소에 수감중입니다.

서대표의 구속은 즉각 제 민주단체와 영화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와 서대표 구속 하루 만에 30여개 단체가 항의성명을 발표하였고,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인권협의회 등 외국단체들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국내외 인권단체는 특히나 인권운동가의 인권활동을 문제삼아 구속시킨 일은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바로 서대표의 구속이 한국에 '양심수가 있다'는 증거라고 들이쳤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 소식을 접한 각 단체들은 공동대책 기구 구성을 자발적으로 요청해왔고, 두 차례의 준비과정을 거쳐 11월 13일 가톨릭회관에서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1월 12일까지 전국연합, 참여연대, 민예총, 민변, 민가협,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7개 단체가 공대위에 가입하였고, 민변은 84명에 이르는 공동변호인단 구성, 매일 집견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가입단체와 변호인단은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공대위에 참가한 단체들은 서대표의 구속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표현의 자유 문제와 국가보안법 문제, 제주 4.3 항쟁의 진실들을 광범위하게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2. 서준식 대표 구속의 배경과 성격

공대위에서는 서대표의 구속은 일단은 전례가 없는 무리한 것이라는 견해가 일치되었습니다. 서대표는 인권영화제와 관련하여 공연법, 음비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 후원회비를 받은 것을 두고 기부금품모집 규제법 위반이라는 것이며, 홍익대 당국이 불허하였음에도 상영을 강행했다며 현주건물침입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혐의들은 지난 10월 마포경찰서에서 출두해 조사를 받던 내용으로 음비법이나 기부금품법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서대표의 구속이 어렵게 되자 부산국제영화제의 초청작품인 <레드 헌트>를 이적성이 있다고 몰아붙이는 것이며, 거기에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드 헌트> 확대상영을 중심으로

따라서, 공대위는 서대표의 구속이 ① 공간 분위기 조성 및 공간세력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몸부림 ② 인권영화제에 대한 탄압, 특히 지역 상영을 위축시키려 함 ③ 제주 4.3 50주년 분위기 고조 차단 ④ 서대표의 활동에 대한 패썹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표현의 자유, 양심수,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문제의식을 가진 단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조직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대위는 이런 상황 인식하에 ①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는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켜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기여한다. 아울러 서대표를 비롯한 양심수들이 김영삼 정부에서 양산되어 왔고, 국가보안법 남용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또한, 인권운동가의 구속을 부각시켜 낸다. ② 문화단체들을 중심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사전심의제도 철폐와 새롭게 구성된 공진협의 문제점을 부각시켜내 사전심의제도

철폐 투쟁의 계기로 삼는다. ③ 제 문제 법률조항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실제적으로 문제 법률조항들을 위헌결정을 받아내도록 한다. ④ 제주 4.3 50주년 추모 및 진상규명 분위기 고조에 일조한다는 것에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① <레드 헌트> 전국 동시 상영; 성당, 교회, 노조, 학교 등의 장소에서 <레드 헌트>를 보고 토론 등의 행사를 갖고 이에 대한 의견을 모아 발표(12월 10일 전후 집중 상영 예정) ② <레드 헌트> 의견개진 운동; 법학자, 사학자, 영화전문가 등과 각계 원로들의 입장 표명 ③ 토론회-<레드 헌트, 무엇이 무엇인가> 개최(일시: 12월 5일경) ④ 적용 법률들의 위헌성을 부각시키는 법률투쟁 ⑤ 국제연대; 인터넷을 통한 국제서명 조직, 정부에 인권단체, 영화단체들의 항의 조직 ⑥ 홍보 및 항의행동 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3. 공동대책위원회 조직 구성

공대위의 명칭은 논란 끝에 가장 구체적인 이름으로 사용키로 합의하여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대위를 대표하는 상임대표로는 김승훈(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신부), 김상근(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공동대표, 목사), 이돈명(제2회 인권영화제-서울 조직위원장, 변호사), 구중서(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이사장), 이창복(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중배(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지영(영화감독, 미정) 등으로 위촉하였으며, 실제 사업을 진행해갈 집행위원장으로서는 김동원(제2회 인권영화제-서울 집행위원장 대리, 푸른영상 대표) 영화감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요단체 집행책임자 8명으로 상설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독립영화단체들은 96년 김동원 감독의 입건을 계기로 결성되었던 표현의 자유 공대위를 재가동, 실제적인 영화 상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서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는 11월 세계주에 결정되며, 첫 재판은 12월 서부지원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1. **언론 기고 활동을;** 언론에 투고 또는 기고, PC통신 게시판이나 토론방에 들어가서 서대표 구속을 항의하는 글을 올립시다. 특히 언론에 기고하신 후에는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 또는 외신과 연락이 닿는 경우 서대표 사건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12월 인권주간에 집중적으로 상영될 <레드 헌트>를 함께 봅시다. 전국적으로 열리게 될 <레드 헌트> 상영시 상영장을 방문하여 함께 서명하고, 의사도 적극 피력합시다.
4. 12월 5일경 열리게 될 ‘<레드 헌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적극 참여합시다.
5. 서준식 대표에게 면회를 하거나 편지를 씁시다. 면회를 가고자 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지는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102번지 3444호(우편번호 152-081) 서준식**으로 하면 됩니다.

해외 서대표 구속 항의 동정(11월 12일 현재)

1.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11월 4일, 서준식 대표가 체포된지 3시간 만에 ‘긴급행동’ 촉구문과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피에르 사네 사무총장 명의의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보냈고, 장기적으로는 Action File을 통해 석방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의 한국담당조사관인 클레어 맥베이(Clare McVey)씨는 현지 언론의 관심이 높으며, 자신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서준식 대표사건을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2. 해외동포들의 지원활동

-독일의 백림노동교실, 재독여성모임, 코레아협의회, 재독양심수후원회가 서대표의 석방을 촉구하는 광고를 <한겨레신문>에 게재했으며, 현지에서 석방촉구활동을 벌이고 있다.

-파리 거주 동포들이 서대표 구속과 관련된 속보를 불어로 번역하여 파리 소재 인권단체에 발송하는 일을 하고 있다.

-11월 7일, 재일 한국인으로 구성된 2개 단체와 한국정치범을 지원하는 4개 단체가 공동명의로 서대표 구속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11월 7일 8시 ‘미국의 소리’ 아침방송시간에 서준식 대표의 구속관련 소식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이를 보도한 하상도 변호사가 방송스크립트를 보내왔고, 동포들의 전폭적인 후원의사를 밝혀왔다.

3. **대만인권연합(Taiwan Association for Human Rights)**은 지난 8일, 대만인권연합의 대표인 아토니 켄 치우(Attorney Ken Chiu)씨의 서한을 김영삼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앞으로 보냈고, 서대표의 빠른 석방을 바란다고 알려왔다.

4. **세계고문방지기구(The World Organization Against Torture)**는 11일 서대표 구속에 항의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낸 항의서한이 첨부되어 있다.

5. **아시아인권정보센터(DAGA; Documentation for Action Groups in Asia)**는 7일 연대의사를 밝혀왔으며, 대한민국 당국에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하겠다고 전했다.

6. **아시아 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는 10일 “서준식-배태랑 인권활동가가 또다시 구속되다”라는 제목의 아시아 인권 경보(Asia-HR-Alert)를 발표하여 아시아 각지의 지원을 호소하였다.

<자료; 발족선언문>

인권운동가 서준식 선생을 무조건 석방하라

우리는 지난주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이자 제2회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서준식씨의 구속을 보게 되었다. 눈과 귀를 의심하며 이성을 잃은 공권력의 치졸한 행동이 법적인 심사 과정에서 바로 잡히길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결국 구속적부심마저 기각된 채 경찰은 11월 12일 서준식 씨를 검찰로 송치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직도 영화 한 편을 상영하는 것이 투쟁이 되고, 인신의 구속에까지 이르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서선생의 구속에 이용된 법률들은 대부분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써 국내외의 비판의 대상이었다. 국가보안법은 그 애매한 규정으로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소지를 항상적으로 지녀왔다. 국가보안법 구속자의 대부분이 이적표현물과 관련되어 구속된 것을 보더라도 이 법이 얼마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이점은 서선생의 구속으로 더욱 분명해졌다.

또한, 사전심의를 규정한 음비법이나 공연법도 헌법이 부정하고 있는 검열제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독립영화의 발전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악법조항이다. 올해 들어 인디포럼 영화제, 쿼어 영화제가 사전심의 문제로 좌절되었던 것은 바로 기존 검열제도의 존속을 위해 발버둥치는 당국의 문화예술에 대한 한심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경찰이 이적성을 시비한 <레드 헌트>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두번이나 상영되었으나 문제시된바 없으며, 제작 당사자에 게 어떤 압력도 가해지지 않았다. 그런데 인권영화제 상영만을 문제삼는 것은 설득력도 형평성도 없는 표적수사일 뿐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문화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의지를 짓밟을 뿐 아니라 국민의 사고를 획일적으로 또한 무비판적으로 길들이려는 공안당국의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한다. 모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검열제도가 법률들이 의도하는 바는 비판적인 안목의 거세와 자기검열의 강화로써 비판을 두려워하는 정권은 바로 독재정권이라고 우리는 선언할 수 있다.

우리는 인권을 위한 서준식 선생의 모든 노력을 존중하며, 그의 숭고한 노력이 감옥에 갇힌 지금, 그의 인권실현의 의지와 행동을 이어가려 한다. 우리는 <레드 헌트>의 이적성을 국민들에게 묻기 위해 이 작품의 전국 동시상영을 준비하고 있다. 학교, 노동현장, 성당, 교회 등 가능한 모든 공간에서 <레드 헌트>를 상영함으로써 이 작품의 무엇이 문제인지를 국민들이 냉철하게 판단하게 할 것이다. 이를 기초로 광범위한 항의행동을 조직할 것이며 이는 서준식 선생의 구속에 대한 항의인 것은 물론 공안당국이 두려워하는 제주 4.3의 진실의 확인일 것이다.

국내외의 많은 양심세력들이 이번 사건에 대한 빗발치는 항의와 굳은 연대의사를 표시해 왔으며, 그 대열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인간적 법인 '인권'이 허락한 이성적 양심과 굳은 의지가 있다. 당국의 반인권적인 야수적 행동은 전세계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며, 스스로의 허구성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우리의 주장>

1. 인권운동가 서준식 선생을 무조건 석방하라! 1. 대선전야 공안몰이 중단하라!
1. 정부는 <레드 헌트> 탄압 중단하고, 제주 4.3항쟁의 진실을 규명하라!
1. 양심수를 석방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1. 표현의 자유 짓밟는 사전심의제도 철폐하라!

1997년 11월 13일

인권운동가 서준식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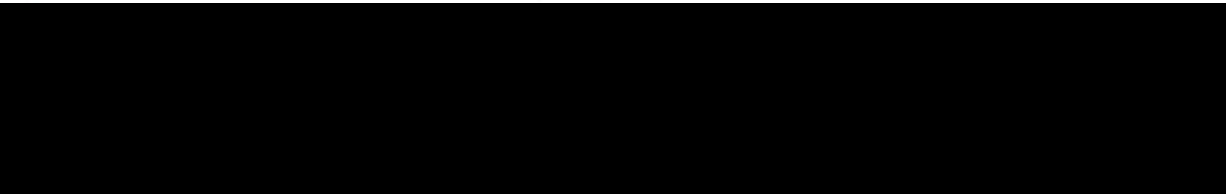
97년 10월 재정보고

(97년 10월 16일 - 11월 10일)

전기이월: +1,020,933원

수 입		지 출	
회비	2,477,500	활동비	3,270,000
구독료	2,353,100	발송비	1,417,030
사업수익	327,820	사무비품	1,092,550
기타수익 : <인권하루소식>		사무실유지	1,232,080
1천호수익	3,164,000	자료구입	105,000
후원금	973,631	식대(야근)	231,700
		전화요금	938,230
		사무기기	264,000
		복사비	340,056
		1천호 사업비	2,050,150
		기타	10,800
수입총액:	9,296,051원	지출총액:	10,951,596원
최종결산:	-634,612원		

<8월 자문 · 운영위원 회비>(가나다 순)



- 10월 회비는 인권운동사랑방 업무조정으로 11월 10일로 결산했습니다. 11월 11일 이후 회비를 납부해주신 분들은 표기되지 않았고, 10월 지로가 함께 갔으니 납부하셨다면 11월 회비만 내주시면 됩니다. 표기상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 10월은 인권하루소식 우편발송봉투, 인권운동사랑방 브로셔 제작 등으로 사무비품비와 사무실유지비 등이 다른 달보다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 1천호 사업 지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비 396,000 장소사용료 350,000 복사비 13,800 문구류 42,350 봉투 25,000
운반비 등 80,000 음식비 1,050,000 뒤폴이 93,000 우편발송 153,790(요금후납)

<구좌 안내>



지 로: 7618848

예금주: 서준식